

한국
전립선암
팩트

2017 한국인 전립선암 발생 현황

2017 KOREAN PROSTATE CANCER FACT SHEET



2017 KOREAN PROSTATE CANCER FACT SHEET

전립선암은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한국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암이다. 국내 전립선암 발생률은 2000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한 해에만 국내 남성 9,785명이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았는데, 이는 2000년 1,304명에서 7.5배나 높아진 것이다. 전립선암의 주된 위험요인은 나이, 서구화된 생활양식 등이다. 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비만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전립선암 위협이 다른 OECD 국가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대한비뇨기과학회·대한비뇨기종양학회는 전립선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전립선암 현주소와 예방·치료·관리에 있어 나아갈 길을 밝히고자 ‘2017 한국인 전립선암 발생 현황’을 조사하였다.

◆ 조사 방법

대한비뇨기 종양학회가 2006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 전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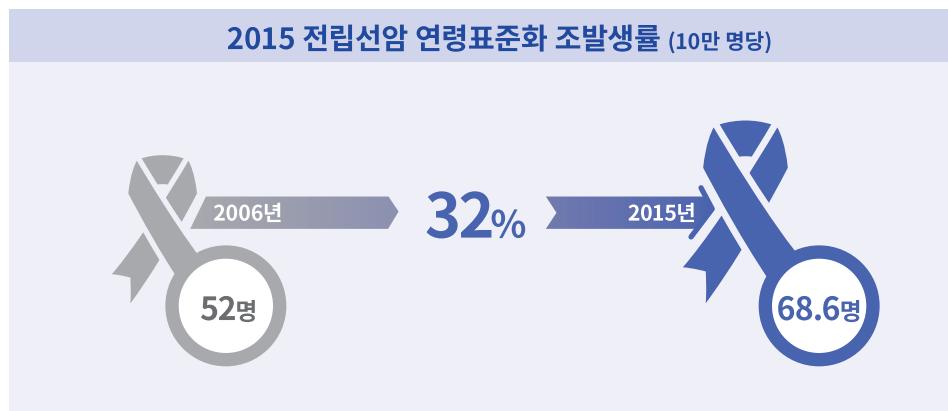
*전립선암은 ICD-10 코드 기준 전립선암 진단 코드인 ‘C61’으로 정의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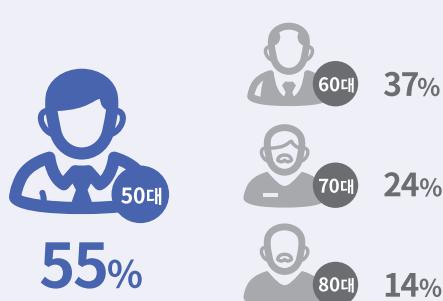
- 2015년 국내 전립선암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10만 명당 68.6명으로 2006년 52명 대비 약 32% 증가
- 연령별로는 10년새(2006-2015) 50대 조발생률이 55%, 60대 37%, 70대 24%, 80대 14% 증가
- 21개 소득분위 중 상위 5개 소득수준 순으로 전립선암 연령표준화 조발생률이 높음
- 초고소득층(20분위)의 연령표준화 조발생률은 89.3명으로, 소득 2분위의 59.9명 보다 1.5 배 더 높음
-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1.29배 높음
- 고혈압환자와 이상지질혈증환자는 정상인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각각 1.45배, 1.4배 높음
- 복부 둘레가 90cm 이상인 복부 비만 남성은 전립선암 발생률이 1.32배 높음

2017 한 눈에 보는 전립선암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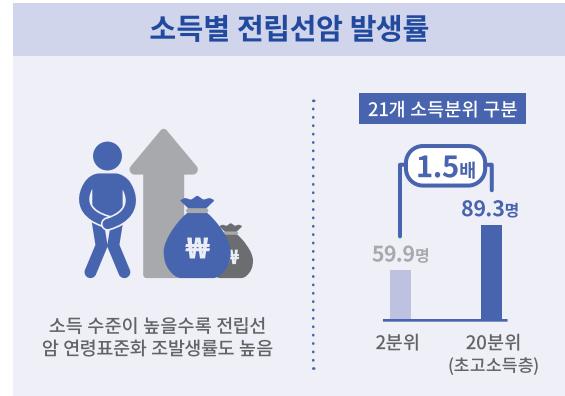
• 2017 KOREAN PROSTATE CANCER FACT SHEET •



2006년 대비 2015년 전립선암 조발생률 증가폭



소득별 전립선암 발생률



동반질환별 전립선암 발생률



1.29배 당뇨병 환자 전립선암 발생률



1.45배 고혈압 환자 전립선암 발생률



1.4배 이상지질혈증 환자 전립선암 발생률

복부비만과 전립선암 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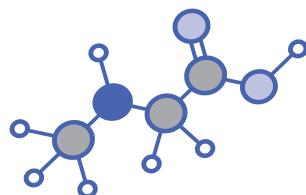


정상체중 남성

1.32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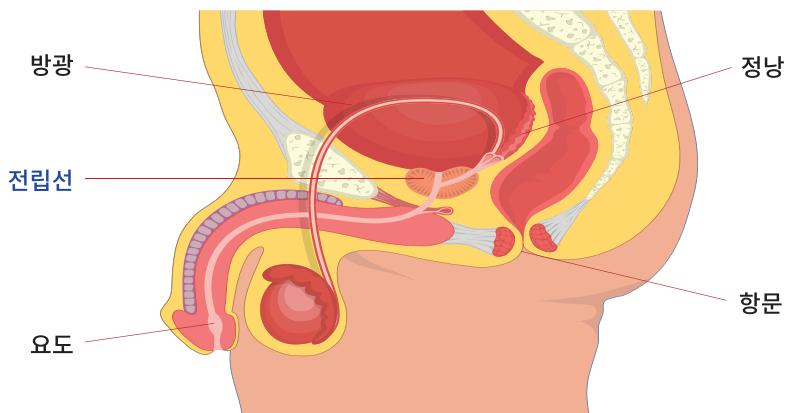
복부 둘레 90cm 이상인
복부비만 남성



남성건강 위협하는 전립선암, 늦기 전에 바로 알자

◆ 전립선암이란?

‘전립샘’이라고도 불리는 전립선은 남자의 방광 바로 아래 위치한 생식기관으로,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고 분비하며 전립선액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전립선 종양은 전립선비대증과 같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인 전립선암으로 나뉜다. 전립선암은 전립선의 일부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의 증식 조절 기능을 잃고 무질서하게 자라나며, 주위 장기 또는 림프절, 뼈, 폐 등 여기저기로 퍼져 나가는 질환이다.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암의 대부분은 전립선 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腺癌)이다.



◆ 전립선암의 증상 및 진단



전립선특이항원검사



직장수지검사

전립선암은 대부분의 경우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병의 진행상태에 따라, 배뇨장애를 겪을 수 있는데 전립선비대증과 증상이 유사해 의학적인 검사가 필수적이다. 50세 이상의 남성 및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는 40세 이상 남성은 매년 전립선암 선별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된다.

전립선암 진단을 위한 선별검사로는 전립선특이항원검사와 직장수지검사가 있다. 두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확진을 위해 추가로 전립선 조직검사를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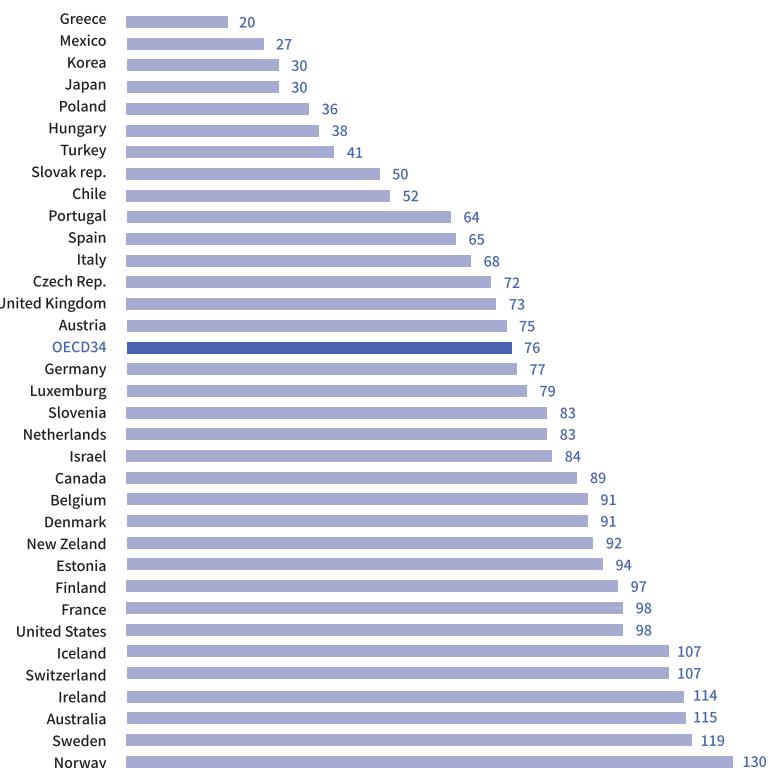
OECD 국가 대표 남성암

◆ 전립선암의 국제적 발생 현황

세계적으로 전립선암은 남성에게 폐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OECD 국가에서는 전립선암이 1위 남성암으로 꼽힌다.^{ii,iii} 국내 전립선암 발생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인구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서구화로 인해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OECD 국가 전립선암 연령표준화 조발생률

Age-standardised rates per 100,000 men



◆ 전립선암의 발병 원인

전립선암은 생활 요인, 환경 요인, 유전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한다. 나이는 가장 중요한 전립선암 발생의 위험인자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립선암의 발생률은 급격히 증가한다. 또, 전립선암은 약 9%에서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립선암 환자와 형제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립선암이 발생할 확률이 약 3배 정도 높다. 전립선암 발생은 동양인에서 가장 낮고 미국,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등에서 가장 높은데,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미국의 백인보다는 낮으나 일본 본토인보다는 훨씬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는 생활환경이 전립선암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음식물과 전립선암의 발생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동물성 지방이나 육류의 과다 섭취는 전립선암 발생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iv}



나이



가족력



음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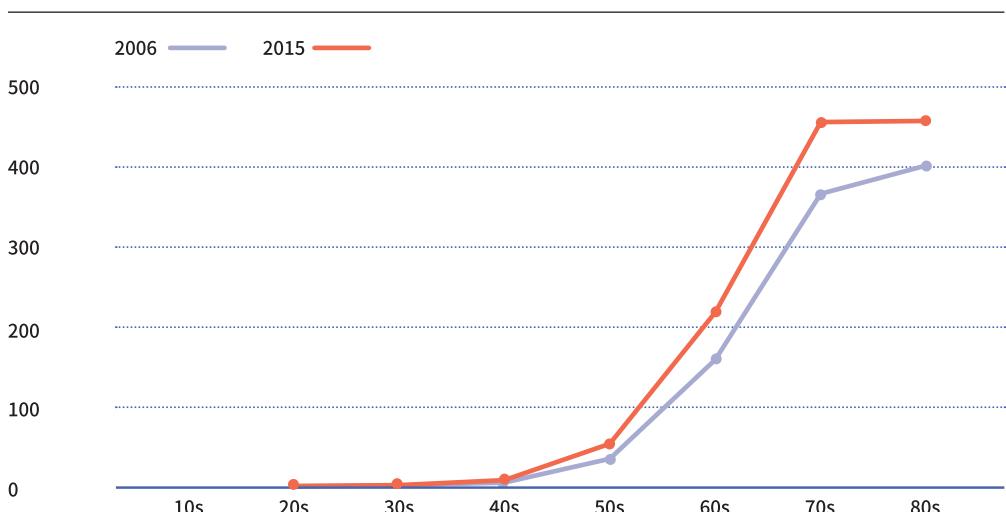
50대 이상 전립선암 발생률 증가 추세

◆ 연령별 발생률

2015년 국내 전립선암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10만 명당 68.6명으로 2006년 52명과 비교하여 약 32% 증가하였다. 전립선암은 보통 40세 이하의 남성에서는 드물다가 50세 이상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60세 이후 많이 발생한다.^v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령별 조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10년새 50대 조발생률은 55%, 60대는 37%, 70대는 24%, 80대는 14%가 각각 증가하였다. 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vi} 전립선암 발생 및 유병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립선암 연령별 조발생률 비교

(100,000명 당)



전립선암 연령별 조발생률

(100,000명 당)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s	0.3	0.1	0.2	0.3	0.3	0.3	0.3	0.4	0.3	0.3
30s	0.8	0.7	0.6	1.1	1	0.7	0.7	1.3	1.2	1.4
40s	4.6	4.9	5.8	7.2	8.4	5.9	6.1	9.3	8.5	7.6
50s	34.1	34.2	39.2	42.8	45.6	39.7	43.8	52.3	52.2	52.7
60s	157	161.2	184	200.2	211.5	213.5	210.5	228	224.3	215.6
70s	362.7	354.9	385.2	416.6	429.2	424.5	424.9	417.7	463.9	451.5
80s	397.8	336.4	399.5	400.6	419.1	417.8	436.2	447.3	443.6	452.9

고소득층일수록 전립선암 발생률 높아

◆ 국내 전립선암 발생 현황: 소득과 전립선암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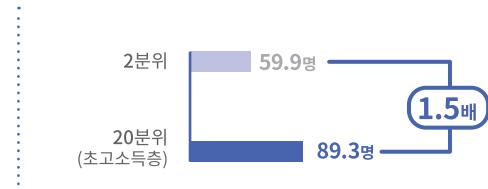
고소득층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중산층 및 저소득층보다 더 높았다. 소득을 21개 수준으로 구분하여 전립선암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상위 5개 소득층에서 높은 연령표준화 조발생률을 보였다. 초고소득층인 20분위의 연령표준화 조발생률은 89.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조발생률이 가장 낮은 소득 2분위(59.9명) 보다 1.5배 높은 수치이다. 고소득일수록 전립선암 발생률이 높은 원인은 전립선암 조기검진을 받을 의료 기회가 더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PSA 검진률도 낮다고 밝혀진 바 있다.^{VII, VIII, IX} 아시아 국가, 개발도상국에서의 낮은 전립선암 발생률은 인종특성, 생활양식과 더불어 서구 선진국 대비 낮은 PSA 검진율에 기인한다는 보고도 있다.^{X, XI}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 전립선암 역학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춘 조기검진과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XII}

전립선암은 대부분의 경우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전립선암 고위험군에서 정기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전립선암은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 하면 생존율이 100%에 달한다. 반면, 전립선을 벗어난 진행암인 경우 5년 생존율이 약 42.1% 정도로 크게 낮아진다.^{X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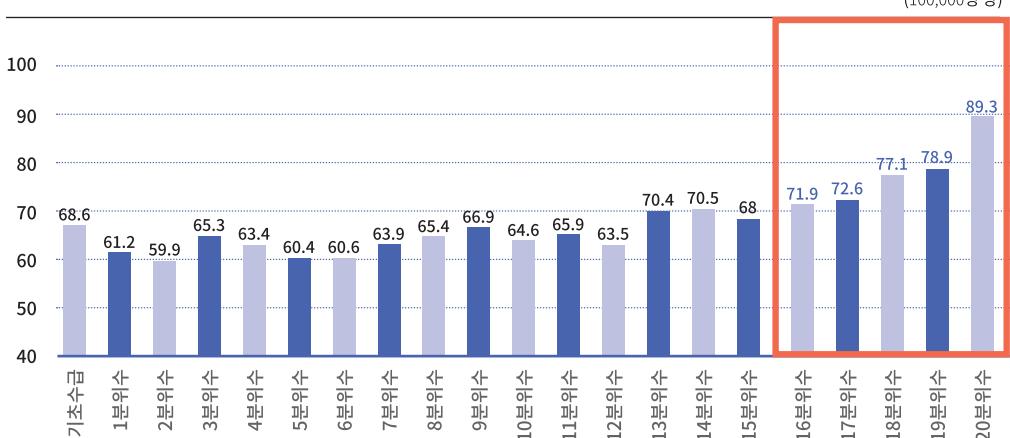
소득과 전립선암의 상관관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전립선암 연령표준화 조발생률도 높음



소득수준별 전립선암 연령 표준화 조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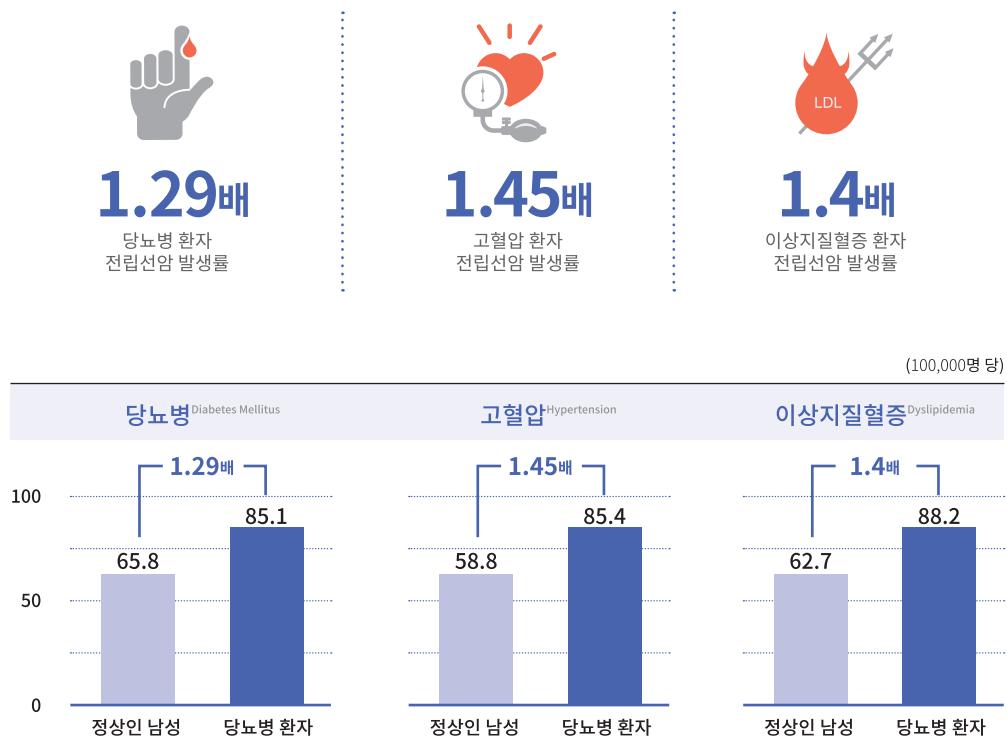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있으면 '전립선암' 발생률 높아

◆ 국내 전립선암 발생 현황: 전립선암과 동반질환의 상관관계

당뇨병 및 고혈압 환자,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더 높았다.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률이 1.29배 더 높았다. 고혈압 환자와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정상인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각각 1.45배, 1.4배 높았다.

동반질환별 전립선암 연령표준화 조발생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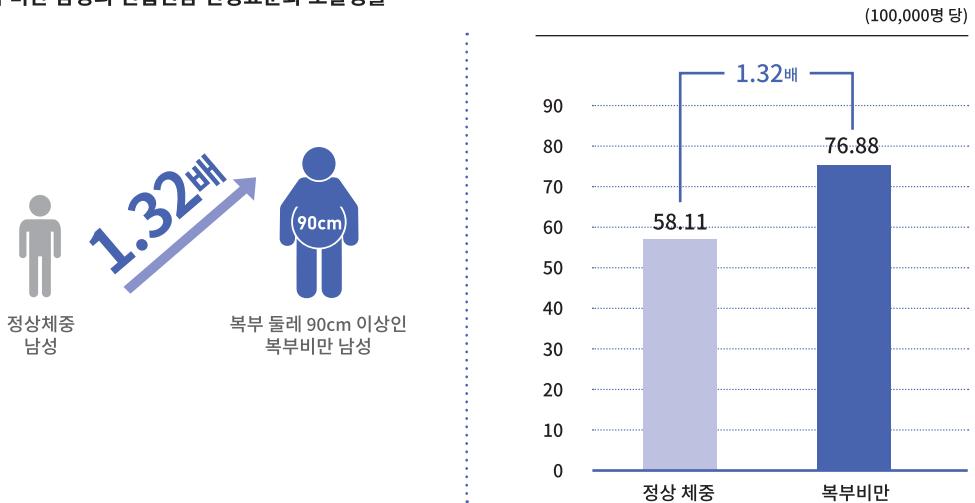


비만하면 '전립선암' 발생률 높아

◆ 전립선암의 국내 발생 현황: 비만과 전립선암의 상관관계

복부비만 남성일수록 전립선암 발생률이 높았다. 복부 둘레가 90cm 이상인 복부비만 남성은 정상인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1.32배 더 높았다.

복부비만 남성의 전립선암 연령표준화 조발생률



전립선암 조기 검진 및 예방

◆ 전립선암의 검진 및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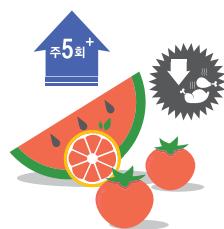
전립선암은 50대 이상에서 발생률이 급증하므로 50대 이상 남성 또는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40대 남성은 매년 전립선암 검진을 하여 조기에 치료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더 높으므로 정기적인 선별 검사를 통해 전립선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인 전립선암 고위험군

- 50대 이상 남성 또는 가족력이 있는 40대 남성
- 특히 이 중 당뇨병을 앓고 있는 남성
- 특히 이 중 고혈압을 앓고 있는 남성
- 특히 이상지질혈증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인 남성
- 특히 복부둘레가 90cm 이상인 남성

남성건강 위협하는 전립선암 예방 5대 수칙

1. 일주일에 5회 이상 신선한 과일·채소를 먹는다.



2. 일주일 중 5일은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한다.



3. 지방 함량이 높은 육류 섭취를 줄이고 적정체중을 유지한다.



4. 50세 이상 남성은 연 1회 이상 전립선암 조기검진을 받는다.



5. 가족력이 있다면 40대부터 연 1회 이상 전립선암 조기검진을 받는다.



I)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 (2014년 암등록통계). 2016.12 II) Ferlay, J. et al. Cancer Incidence and Mortality Worldwide: Sources, Methods and Major Patterns in GLOBOCAN 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 Vol. 136, No. 5, pp. E359-E386. 2014 III) OECD. (2015, Nov 04) Health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15. P64. Retrieved August 8, 2017. From http://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health-at-a-glance_19991312 IV) 국가암정보센터. (2017, Jan 16) 내가 알고 싶은 암. 암의 종류. Retrieved August 8, 2017. From http://www.cancer.go.kr/mbs/cancer/jsp/cancer/cancer.jsp?cancerSeq=4949&menuSeq=4956&viewType=all&id=cancer_020110000000 V) 국가암등록사업연례보고서(2016.12) VI) 통계청. 2015 한국의사회지표. 2016.03.22 (『장래 인구추계』 2011.12.) VII)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의료 2013. 2013 VI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슈&포커스, 우리나라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 불평등. 제 280호 (2015-12) 2015. 05. 04 IX) Moses KA at al. The impact of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PSA screening among low-income Black and White men: data from the Southern Community Cohort Study. Prostate Cancer Prostatic Dis. 2017 Jul 11. doi: 10.1038/pcan.2017.32. Available from: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695916> X) Conversely, men who lived in more socioeconomically deprived areas, were current smokers, had a lower alcohol intake, a higher BMI or who had been diagnosed with diabetes, heart disease or stroke were less likely to have had a PSA test. Available from: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147810/> (Littlejohns et al. Lifestyle factors and prostate-specific antigen (PSA) testing in UK Biobank: Implications for epidemiological research) XI) Ito K. Prostate cancer in Asian men. Nat Rev Urol. 2014 Apr;11(4):197-212. doi: 10.1038/nrurol.2014.42. Epub 2014 Mar 4. XII) Ito K. Prostate cancer in Asian men. Nat Rev Urol. 2014 Apr;11(4):197-212. doi: 10.1038/nrurol.2014.42. Epub 2014 Mar 4. XIII) 국가암등록사업연례보고서(2016.12)

블루리본캠페인은
대표적인 남성암인 전립선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구축하고
조기검진을 확대하기 위한
질환 인식 캠페인입니다.

➤ 대한비뇨기종양학회 홈페이지

www.kuos.or.kr



대한비뇨기과학재단